

# 방문객 주차장 없이 문 여는 '전일빌딩245'

37면 부설 주차장 입주자용 문화명소로 키우겠다면서 방문객 편의 전혀 고려안해 개관땀 인근 혼잡 불보듯



광주시가 22억원을 들여 전일빌딩 부설주차장을 조성했지만 입주업체 전용 공간일뿐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 공간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전일빌딩245'가 개관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방문객들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 공간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빌딩을 광주지역의 관광 랜드마크이자 문화중심센터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게 광주시의 계획이지만 정작 전일빌딩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전일빌딩 주변 이면 도로가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해 교통 혼잡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일빌딩에는 총 53면(전일빌딩 지하 8면, 전일빌딩 뒤편 8면, 부설주차장 37면)의 주차공간이 조성됐다. 건축법상 요구하는 최소한의 주차공간만을 조성한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가 22억원의 시비를 들여 광주시 동구 공동(928.9㎡)에 설치한 부설 주차

장은 전일빌딩 입주기관(단체)만이 주차할 수 있다.

민간인 방문객과 타지역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전일빌딩 뒤편 8면 뿐이다. 전일빌딩 지하의 8면은 경사로가 심해 자칫 사고의 우려가 있어 민간인 방문객들의 사용을 금지한다.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전일빌딩 입주기관(단체)은 운영관리 및 용역·시립도서관·남도관광센터·콘텐츠기업·NGO

센터·518전시관·임대공간 업자·전일문화센터 관계자뿐이다.

광주시는 전일빌딩 내 시민문화복합센터·남도관광센터 등에 광주시민과 타지역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를 채워 광주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만 세웠을 뿐, 실제 방문객들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문화 콘텐츠 허브로 구성된 지상 5~7층에는 총 60여 개의 기업에 500여명

이 날마다 전일빌딩에 출퇴근을 하지만 이들에 대한 주차 대책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미 전일빌딩을 중심으로 평소에도 이면 도로에는 불법주차차가 된 차량들이 빼곡하다. 전일빌딩이 정식 개관을 거치고 모든 층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전일빌딩을 중심으로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광주시는 방문객들의 주차공간을 우려해 지난해 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협의를 거쳐 ACC지하 주차장을 방문객 주차장과 연결하려 했으나, ACC측의 거부로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또 인근 사설 주차장과 협의하고 있지만, 주차면수와 계약대금 등의 문제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일빌딩을 중심으로 동명동, 예술의 거리 등을 연계해 장기적으로 문화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전일빌딩 운영 담당자는 "민간 사설주차장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목록이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

# 고3만 11일째 등교개학 유력검토

"중3은 생활방역 준수 불확실" 나머지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교육부 "각계 의견 수렴 중"

정부가 고등학교 3학년만 오는 11일째 먼저 등교하고, 중학교 3학년을 포함한 나머지 학년은 19일 이후에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당초 고3·중3이 먼저 등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현재는 첫 등교 대상에서 중3을 빼는 방안이 무게를 두고 있다.

만 18세로 사실상 성인이나 다름없는 고3과 달리, 만 15세인 중3이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연령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들이 등교하면 담임 등 교사들이 수시로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도하겠지만, 교사가 모든 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 없이 지켜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3을 제외하는 이유로 언급된다.

또 하나의 변수는 짧게는 3일, 길게는 5일까지로 이어지는 '황금연휴'다. 방역 당

국은 황금연휴 때 봄나들이 행락객이 많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도 이번 황금연휴 때문에 학생 감염이 늘어나 등교개학에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분위기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교육계에서는 연휴 이후 2주 동안 더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는 중대본 지침을 수용해 등교 개학을 19~20일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여전히 '심각' 단계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 고3도 등교하지 않는 게 나은 상황"이라며 중3이 첫 등교 대상이 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중3 등교가 이뤄지면 영재학교·자율형 사립고·과학교·외국고·국제고 등의 '고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학부모 일부가 다소 불안이겠지만, 자녀가 고입 준비를 하지 않는 대다수 학부모들은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 회의, 교육계 및 외부 전문가 회의 등에서 등교 시기·방법에 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고3만 먼저 등교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라며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2m 간격 마스크 쓰고 꽃구경 황금연휴 첫날인 30일 오후 화순군 도곡면 운주사 초입에 조성된 튜립 정원을 찾은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튜립을 감상하고 있다. /최혜남 기자choi@kwangju.co.kr

# 광주북구, 공직자 착한 선결제 챌린지 캠페인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착한 선결제 챌린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북구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광주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직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개인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등에 선결제 후 재방문을 약속하는 착한소비이다.

이번 공직자 선결제 챌린지는 북구의 한 공직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음식점, 카페, 농산·수산·축산식품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소에서 선결제하고 내부 행정업무 시스템에 인증사진을 게시한 후 다음 사람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20일 첫 번째 챌린지 참여자를 시작으로 일주일동안 130명(1400만 원 상당의 선결제)이 동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학벌 없는 시민모임 "광주 지자체 장학회 '학교밖 청소년' 배제는 차별"

광주 지역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회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 '학교밖 청소년'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0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광주 지자체가 운영하는 6개 장학회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이 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장학회의 경우 특정 대학(교육감 인가형) 학생으로만 한정해 선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광주 지역과는 달리 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장학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장학재단 지원 대상과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대해 학벌 없는 사회 측은 "성장이 없는 청소년은 학교 재학 여부와 상관

없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장학회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기 본분 등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 황금 연휴기간 2~3일

#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 비

황금 연휴기간인 오는 2~3일 이틀간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은 1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다가, 2일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점차 흐려져 밤부터 남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이번 비는 3일 오후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연휴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12~17도, 낮 최고기온은 23~28도 분포로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김민석 기자 mskim@

# 광주대 비대면 온라인 수업

# 1학기 전체로 확대 운영

광주대학교가 1학기 전체를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다.

지난 30일 광주대에 따르면 이날 김혁중 광주대 총장은 총학생회 임원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뒤, 교무위원회를 거쳐 5월 8일까지 예정됐던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1학기 전체로 확대 운영토록 의결했다. 또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등의 의견을 청취해 이같이 결정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